

## 錦南 崔溥의 <耽羅詩 三十五絶> 研究\*

임준성\*\*

### <차례>

1. 서론
2. <耽羅詩三十五絶> 作詩 背景과 傳承過程
3. 崔溥의 文學觀
4. <耽羅詩三十五絶>의 주제별 분석 고찰
5. 결론- <耽羅詩三十五絶>의 가치와 앞으로의 과제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 전기 때의 인물 錦南 崔溥(1454-1504)의 <耽羅詩三十五絶>를 조명한 것이다. 崔溥는 佔畢齋 金宗直의 문인으로 士林의 맥을 이은 호남의 士林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분으로 어려서부터 기질이 남다르고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녔다. 당시 燕山君의 폭정과 勳舊派의 專橫을 좌시하지 않았으며, 선비로서 비판의 칼을 늦추지 않았던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잇다른 士禍에 연루되어 甲子士禍 때 결국 51세의 나이로 희생되고 말았다.

崔溥의 문집 『錦南集』에는 <耽羅詩三十五絶>이 전하지 않는다. 다행히 淸陰 金尙憲이 지은 『南槎錄』에 <耽羅詩三十五絶>과 序이가 전하고 있어 崔溥의 詩의인 면모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 작품은 1487년 11월 推刷敬差官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어 그곳에 머무른

\* 본고는 2010년 中國 杭州市 浙江大學 韓國研究所에서 주최한 <崔溥之旅中韓交流圈>에서 요약발표한 것을 읽고 다듬어서 논문으로 완성한 것임을 밝힌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하신 北京大 葛振家 教授 등은 필자에게 유익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후의에 감사드린다. 이와 별도로 본고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에 발간하는 『島嶼文化』 제36집(2010. 12)에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에 대해 영인자료와 함께 간략히 소개했다.

\*\* 조선대학교

석달 남짓한 동안에 제주의 역사와 풍물을 압축하여 한 편의 대서사시로 엮어낸 것이다. 이는 崔溥의 박물학적인 지식이 총동원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東國輿地勝覽』을 增補하는 작업을 맡았을 때 제주의 물산과 풍속을 소문과 문헌자료에만 의존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다가 때마침 추쇄경차관이라는 제주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은 서사시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기 보다는 제주의 자연풍경과 탄생전설, 그리고 역사와 풍물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제주 전반에 걸친 일종의 장편서사시로 분류할 수 있다. 崔溥의 서사적 경향은 그가 과거에 1485년에 『東國通鑑』을, 1486년 『新增東國輿地勝覽』을 편찬했던 경험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역사서와 지리지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갖가지 사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崔溥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키워나갔을 것이다. 이는 經世濟民에 강한 포부와 의지를 가졌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핵심어 : 錦南, 崔溥, 耽羅詩, 漂海錄, 金尙憲, 南槎錄

### 1. 序論

錦南 崔溥(1454~1504)는 朝鮮 전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湖南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녀 당시 燕山君의 폭정과 훈구파의 무능을 좌시하지 않고 선비된 자로서 비판의 칼을 늦추지 않았던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 經典과 歷史에 밝고 문사에 뛰어났으며, 공정·청렴·정직하여 나라에 옳고 바른 말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벼슬아치였다. 그러나 잇다른 士禍에서 결국 51세의 나이로 희생되고 말았다.

崔溥는 1487년 11월 推刷敬差官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곳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가에 제주의 역사와 풍물을 수집하여 <耽羅詩三十五絶>라는 귀중한 작품을 남겼다. 문제는 그의 문집인 『錦南集』에 실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의 문집에는 한시 작품이 한 수도 실려 있지 않다. 문집에서 누락된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 때문에 崔溥의 시적인 면모가 사장되고 말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제주 역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耽羅詩三十五絶>의 존재를 알았다. 崔溥는 제주에 온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육지로 향하던 중에 표류하였는데, 후일 왕명을 받아 그때의 기록을 남긴 것이 『漂海錄』이다. 지금까지 崔溥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항상 『漂海錄』이 놓여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연구는 대상 인물에 대한 각각도로 접근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의욕까지 꺾이게 한다.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은 학계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은 작품이다. 본 연구는 작품의 작시배경과 전승과정을 살펴본 후 이를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여 시적 해설을 곁들이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耽羅詩三十五絶> 作詩 背景과 傳承過程

崔溥는 1487년(成宗 18) 9월 17일에 제주도 濟州牧, 大靜縣, 旌義縣 등 세 고을에 대해 推刷敬差官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주쇄경차관은 육지에서 죄를 짓거나 軍役을 회피한 사람을 찾아내고, 良民과 賤民이 뒤섞이는 것을 바로잡는 일을 맡는 임무이다. 여기에 덧붙여 조정에서 필요한 말을 가려 뽑는 일도 경차관으로서 맡아야 할 일이었다. 그가 제주에 도착한 이듬해에 부친상을 당하자, 육지로 향하던 중 악천후에 그만 표류하

고 말았다. 그가 남긴 『漂海錄』에 보면 경차관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월4일. 제주는 큰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 물길이 매우 험하고 멀어서 무릇 죄를 지은 자가 모두 도망쳐 들어가 피한 자가 많았다. 오랫동안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찾아내려 하는 것이요.<sup>1)</sup>

천신만고 끝에 낯선 땅 중국에 표류하여 그곳 관리에게 자신의 직분을 밝힌 내용이다. 이렇듯 경차관의 임무를 띠고 그해 11월 11일 전남 해남군 현산면의 館頭梁에서 배를 띄워 출발했다. 때마침 순풍이 불어 그 다음날 제주 朝天浦에 무사히 도착했다.

崔溥에게 제주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未知의 世界였다. 그가 스승인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을 도와 『東國輿地勝覽』을 增補하는 작업을 兪好仁(1445~1494), 申從濩(1456~1492) 등과 함께 맡았을 때 제주의 물산과 풍속을 소문과 문헌자료에만 의존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때마침 경차관이라는 책무가 귀찮고 번잡한 직무라 대부분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崔溥는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제주에 도착한 후 崔溥는 경차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제주만의 역사와 풍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閏正月에 父親喪 소식을 듣고 제주를 떠나야만 했다. 그가 제주에 머무른 기간은 세달 남짓에 불과했다. 그가 제주의 역사와 풍물 등등을 두루 살펴면서 관련 문헌자료 타버렸거나 또는 흩어져서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이 여겨 후세에 도움이 될까 싶어 <耽羅詩三十五絶><sup>2)</sup>을 엮었다. 그가 이 시를 짓게 된 동기와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1) 崔溥, <漂海錄>』卷3, 『錦南集』韓國文集叢刊 16, 424쪽, 民族文化推進委員會. “濟州在大海中 水路甚險甚遠 凡有犯罪者 皆逃入以避 久爲逋逃之藪 故往刷之”

2) 본고에서 <耽羅詩三十五絶>의 대본으로 삼은 것은 金尙憲이 편집한 『南槎錄』(서

기록문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 후기 때 문인이자 척화파로 유명한 淸陰 金尙憲(1570~1652)이 160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按撫 御使라는 직무를 띠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의 역사와 문물을 정리한 『南槎 錄』<sup>3)</sup>이 바로 그것이다.

崔溥가 弘文館 副校理로 지낼 때 어명을 받들어 『동국여지승람』을 교정하였다. 여러 해를 보내며 강구하여 우리 海東의 여러 道, 州, 府, 郡, 縣이 있는 곳과 그 있던 자리는 이미 눈감고도 환하게 아는데 오직 제주도 하나만은 멀리 바다가운데 서울에서 수천 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듣는 것만 가지고 글을 쓰려니 빠진 것이 아주 심해서 한번 그 땅에 직접 가서 바로 잡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丁未年(1487년) 9월에 임금이 타는 말을 끌어서 바치고 목장을 살피고 숲은 장정을 헤아리고 양민과 천민을 구분하고 떠돌아 다니는 백성을 없애라는 어명을 받들고 이곳에 사신으로 왔다. 이 해 음력 십일월 십이일 새로 부임하는 목사 許熙과 관두랑에서 같이 배를 탔다. 날씨가 좋아서 눈썹 짙을 새에 조천포에 도착했다.

읍내 사람들이 그 뱃길이 몹시 빠르는데 놀라워했다. 제주의 여러 관리들이 항구까지 마중나왔다. 또 모두들 거죽이 고물망이 있는 몇 사람이 차례로 인사하는데 예의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어 향교에서 공자상을 뵈고, 선비 백여 명이 또한 예를 갖추어 뵈었다. 儀容과 仗物이 번쩍 빛나는 것이 볼만했다. 바다 밖이라고 해서 알잡아 볼 수 없었다. 객사로 물러나 거처할 자리를 잡고 일을 처리하는 여가에 앞서 말한 여러 사람들이 더러 아침저녁으로 오고 가고 해서 조용하고 쓸쓸하지 않았다.

칠팔일 있다가 또 허목사와 같이 각 현을 순시하였는데, 여러 관리들이 역시 모두 예의를 갖추어 마중나왔다. 崔溥가 주변을 살펴보니 산천의 생김새가 적에게 불리하고 자기편에 유리한 형국이었다. 인물과 풍속도 번성하고 화려했다. 토산, 관방, 교량, 관청의 집들과 제사지내는 사당, 고적 등을 두루

올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소장)이다.

3) 현재 『南槎錄』은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간행한 문집총간본 『淸陰集』에 실려 있지 않고 『淸陰遺集』에 실려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청음의 후손 金禧東이 1992년에 간행한 『國譯 南槎錄』(영가문화원)에 언급하고 있으나 필자가 과문하여 아직 『淸陰遺集』에 대한 소재파악을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은 결정적으로 影印資料를 싣고 있어 1차 자료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추후 원본조사를 통해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보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제주에서 소장한 옛날 역사를 찾아보고자 했으니 관부에 붙이 나서 타버렸다고 한다.

崔溥가 나름대로 생각하니 이 땅은 옛날부터 나라로 삼았다. 성주, 왕자를 봉한지가 천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의 역사와 유적이 없어져서 들어볼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野史를 찾아보고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보고 들은 것을 간추려서 내 뜻대로 판단했다. 이 뜻을 나타내어 <耽羅詩三十五絶>을 엮어서 한편으로 만들어 뒤에 붙인다. 제주사람으로 하여금 깨끗이 옮겨적어서 책을 만들어 이 읍에 보관하도록 하고, 장래에 참고가 될 문헌으로 삼고자 한다. 1487년 12월 경차관 崔溥 쓰다.<sup>4)</sup>

이 인용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崔溥는 경차관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제주의 역사와 풍속 등등을 수집하여 1487년 12월에 <耽羅詩三十五絶>을 지어 한편의 책으로 엮었다고 밝히고 있다. 崔溥가 제주에 도착한지 불과 두 달 남짓도 안되는 기간이다. <耽羅詩三十五絶>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글을 읽어보면 육지가 아닌 섬이 소통과 단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의와 문물을 숭상하는 모습은 崔溥에게 새로운 발견이었다.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국적인 제주의 풍경 속에서도 육지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崔溥 특유의 따뜻한 시선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의 德化와 朝廷의 教化가 이 먼 바다 바깥의 섬에게까지 미쳤다고 생각하니 조정의 관

4) 金尙憲, 『南槎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청구기호:古4790-42). “溥 嘗爲弘文館副校理時 承命校讎 東國輿地勝覽 幾閱歲講究 我海東諸道州府郡縣之地之跡 已瞭然心目 唯濟州一島 邈在海中 距京都數千里 撰以所聞脫漏尤甚 思欲一致身於其地 以質正焉 歲丁未九月 奉命以採御乘 監牧場括隱丁 辨良賤 刷流移人口 來使於此 是年仲冬十有二日 與新牧伯 許公熙 同舟于館頭梁 遇便風 暫眼間到泊朝天浦 邑人 數其舟行甚駛也 本州諸官 偕迎于海口 又州人若干 皆巨族有物望者 以次來謁 禮莫愆 因謁聖于鄉校 校生百餘輩 亦以禮謁之 衣冠文物 粲然可觀 不可以海外少之 退舍所館治事之暇 已前諸人等 或晨昏往來 以破幽寂 居七八日 又同許牧伯 巡各縣 諸官亦皆具禮以迎 溥 於是周觀 山川形勝之襟帶 人物風俗之繁華 土產關防 橋梁館宇祠祀古蹟 靡不詳悉 遂欲效州藏舊乘 則爲官府失火所焚 溥竊念 此地舊爲國封 星主王子以來 千有餘載 已往沿革遺迹 泯沒無聞 良可恨已 因窮搜野史 質諸父老 兼採所觀聞 斷以己意 表爲此編 製耽羅詩三十五絶 合爲一篇 附於後 令州人繕寫成帙 藏之本邑 以爲後日文獻所徵 成化二十三年丁未十二月 敬差官 崔溥 書”

리로서 한껏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의 전승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표류한 사실 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보인다. 이 작품은 어찌된 까닭인지 정작 그의 문집인 『錦南集』에 실려 있지 않다. 현재 전하는 『錦南集』은 그의 外孫 眉巖 柳希春(1513~1577)이 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금남 사후 67년째인 1571년에 『漂海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간행했다. 『漂海錄』은 1488년(성종 19)에 왕명을 받아 바친 책으로 1569년 유희춘에 의해서 처음 간행되었으며, 다시 1573년 당시 평안도 관찰사 負暄堂 吳祥(1512~1573)에게 부탁하여 定州에서 木版으로 별도로 간행했다. 이 책은 일본이나 중국에도 번역되었으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하멜의 『하멜표류기』와 함께 세계 3대 여행기로 꼽힌다.

그러나 壬辰倭亂으로 인해 목판본이 흩어져 버린 탓에 1676년 崔溥의 외6대손인 羅斗春이 羅州牧師 李喜年의 도움을 받아 간행했다. 『錦南集』은 본집 2권과 표해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집에는 疏 2편, 記 4편, 碑銘 1편과 <東國通鑑論> 118편이 실려 있으며, 『표해록』은 崔溥가 제주에 추쇄경차관의 직무로 갔다가 부친상을 받고 육지로 가던 중 漂流하여 13일 만에 중국에 도착하고 그 후로 귀국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日記형식으로 지은 것으로 표류 상황과 浙江에서 燕京까지 山川土産, 人物風俗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錦南集』에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이 실려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적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錦南集』에서는 詩文조차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는 점이 더 놀랍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한시창작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주의 역사와 문물을 산문기록이 아닌 한편의 장편 서사시로 그려낸 <耽羅詩三十五絶>을 두고보더라도 그의 한시창작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좀더 면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崔溥가 황망 중에 부친상을 당하자 급히 제주를 떠나느라고 미처 자신의 제주관련 기록물을 챙기지 못한 전

제하에 추론이 가능하다. 아직 경차관이라는 직무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부친상을 마친 후 다시 제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崔溥는 <耽羅詩三十五絶>을 두고 개인의 창작물보다는 역사 기록물로서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결코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崔溥는 뜻하지 않게 표류를 당했다. 갖은 고생 끝에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그후 다시 제주로 가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崔溥가 1504년 甲子土禍로 참형을 당하자 그와 관련된 것은 모두 금기시되어 이 때문에 문헌자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연산군의 폭정아래 사림에 대한 탄압이 심할 때라 崔溥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할 정도였다. 그의 외손인 유희춘은 『錦南集』을 간행할 당시에 <耽羅詩三十五絶>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사전에 <耽羅詩三十五絶>의 존재를 알았다더라면 당시 관찰사 신분으로는 얼마든지 수집가능한 일이고, 당연히 『錦南集』에도 수록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은 현재 金尙憲의 『南槎錄』에 실려 있는 것이 가장 앞선 시기의 기록이다. 그는 1601년 鄭汝立의 謀叛事件과 관련한 인물인 吉雲節(?~1601)의 제주반란 사건을 해결하기 按撫御使로 파견되었다. 그가 32세 때인 1602년 8월에서 1603년 2월까지 6개월 남짓동안 제주에 머무르면서 제주의 風土, 物産, 民政, 風俗, 古蹟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南槎錄』이라 이름하여 펴냈다. 펴낸 시기는 尤庵 宋時烈(1607~1689)이 序文<sup>5)</sup>을 쓴 시기가 1669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훗날 목판본으로 펴낸 시기를 말하며, 실제로는 제주에 머무른 시기인 1603년에 썼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주목사 李元鎭(1594~?)이 1653년에 편찬한 『耽羅志』<sup>6)</sup>에 수록되었고, 李增(1628~1686) 또한 1679

5) 宋時烈, <南槎錄序> 『宋子大全』 권137, 文集叢刊 112, 540쪽, 民族文化推進委員會.

6) 이 책은 1991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탐라문화총서』 중 아홉번째로 影

년 12월초부터 이듬해 4월초까지 5개월 남짓 巡撫御使로 파견되어 지내  
는 동안 『南槎日錄』을 펴냈다. 이 책은 金尙憲의 『南槎錄』에서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잇는다는 뜻이 강하다. 여기에도 崔溥의 <耽羅詩  
三十五絶>이 실려 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 金尙憲의 『南槎錄』과 李增의 『南槎日錄』에  
는 金宗直의 <毛羅歌十四首>가 실려 있어 주목을 요한다. 金宗直은 1465  
년 2월 28일 稷山의 성환역에서 하룻밤 묵던 중 제주에서 공물로 약을  
바치러 온 사람 金克修를 만나 그와 밤새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묻  
고 나누면서 그 말을 기록하여 시로 14수를 지었다고 서문<sup>7)</sup>에서 밝히고  
있다. 이 시는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하여 濟州鄕  
校 明倫堂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한다.

金尙憲 또한 제주에 관한 기록을 좇아 자신도 金宗直의 <毛羅歌>를 본  
받아 14수의 시를 남겼다. 김종직은 崔溥의 스승이다. 崔溥 또한 김종직  
의 <毛羅歌>에 대해 아는 바 있지 않을까 추정해볼지도 하지만 만일 그  
렇다면 앞서 인용한 <耽羅詩三十五絶>을 지은 동기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으로 보아 崔溥는 金宗直의  
<毛羅歌>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崔溥의 文學觀

최부가 살았던 15세기 조선의 학문 경향은 道學派와 詞章派가 서로 대  
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학파는 도학적 경세론(經世論)에 바탕을

둔 지치주의(至治主義)를 표방했으며, 靜庵 趙光祖(1482~1519)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반면 사장파는 世祖 즉위에 공을 세운 자들의 집단인 勳舊  
派 세력이 중심으로 六經에 힘쓰기 보다는 文章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띠고 있다. 훈구파는 사장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도학파는 사림파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성종과 연산군 때에 이르면 두 파가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 훈구파는 사림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4대 士  
禍를 일으켰으며, 최부는 甲子士禍 때에 그만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최부는 고려말 治隱 吉再(1353~1319)로부터 佔畢齋 金宗直  
(1431~1492)에 이르는 도학파의 흐름을 계승하여 문학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文以載道’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다. 단지 도학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차원에서 긍정했다.

최부는 시를 즐겨 짓지 않았던 듯하다. 그의 문집 『錦南集』에 단 한 편  
의 시조차 실리지 않았다는 점은 그가 평소 시짓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  
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최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타 다른 문인  
인 金宗直은 물론이고 趙光祖 등이 한시작품을 남겼던 것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그가 부친상을 당해 제주에서 올라오던 중 표류하여 6개월에 걸  
쳐 조선으로 귀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漂海錄』을 보면, 문학에 대한  
주관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신은 시를 지을 줄 아십니까?”, “詩詞는 경박한 자가 풍월을 조롱하는  
밧전으로 하는 것이지. 도를 배우는 독실한 군자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우  
리는 격물치지 성의정심으로 학문을 삼고 있으며, 시사를 배우는 것에 뜻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먼저 불러주면 마지못해 화답할 뿐입니  
다.”<sup>8)</sup>

1488년 윤1월 19일자 기록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최부는 詩作에 그

7) 印 出刊되었으며, 2002년 김찬흡 등의 번역으로 『역주 탐라지』(푸른역사)로 출판  
되었다.

7) 金宗直, 『佔畢齋集』卷1, 韓國文集叢刊 12, 208쪽, 民族文化推進委員會. “乙酉二月  
二十八日 宿稷山之成歡驛 濟州貢樂人金克修亦來 因夜話 畧問風土物產 遂錄其言  
爲賦毛羅歌十四首”

8) 崔溥, <漂海錄> 卷3, 『錦南集』, 韓國文集叢刊 16, 437쪽, 民族文化推進委員會. “你  
作詩否 臣答曰 詩詞乃輕薄子嘲弄風月之資 非學道篤實君子所爲也 我以格致誠正爲  
學 不用意學夫詩詞也 若或有人先倡 不得不和耳”

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格物致知’와 ‘誠意正心’만이 군자가 지향해야 할 덕목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시를 지으면 和韻할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것도 ‘마지못해’라는 구체적인 감정까지 표현하면서 말이다. 『漂海錄』을 자세히 보면 중국 현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시로 답례했다는 대목이 더러 나온다. 다만 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후일 成宗의 명을 받아 『漂海錄』을 집필할 때 자신이 답례한 시내용을 옮겨적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그다지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처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당신은 시를 지을 줄 아시오?”, “우리나라 선비들은 모두 經學을 궁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으나 풍월을 읊조리는 것을 천시하기 때문에 나 역시 詩詞는 배우지 않았소.”<sup>9)</sup>

같은 해 2월 17일자 기록이다. 앞서 윤1월 19일자 기록과 비슷한 사례이다. 선비의 본분은 오로지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經學에 있을 뿐이지 詞章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조선 선비의 자긍심을 바탕에 깔고 있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崔溥의 詩的 능력은 중국 관리들의 찬사를 받았던 것 같다. 그가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지만 마땅히 대접할 수 없는 처지이다보니 시로써 답례를 자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서도 崔溥는 불의에 타협치 않는 깨끗한 조선 선비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같은 해 2월 9일자 기록에 다음과 같은 사건은 正道가 아닌 것에 대한 崔溥의 비타협성을 보여준다.

이절의 친구가 『小學』한 권을 소매에 넣고와서 이절에게 부탁하여 나에게 선물로 주고 시를 얻고자 했다. 나는 말했다. “공이 없으면서 남이 주는 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염치를 손상하게 하는 것이 감히 사양하겠소.” 이절이 말했다

9) 崔溥, <漂海錄> 卷3, 『錦南集』, 韓國文集叢刊 16, 458쪽, 民族文化推進委員會. “你能詩否 臣曰 我國士子皆以經學窮理爲業 嘲弄風月爲賤 故我亦不學詩詞”

다. “그 사람이 시 한 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고자 한 것이오.”, “시를 짓는 것도 시원치 않고 글씨도 잘 쓰지 못합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남의 좋은 것과 바꾸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오.” 그 사람이 다시 소매에 책을 넣고 돌아갔다. 이절이 내게 말했다. “道로써 사귀고, 禮로 사람을 대하면 공자 또한 이를 받았는데, 어찌 물리침이 이리도 심하시오.”, “그 사람은 책을 기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를 얻은 것에 뜻이 있는 것이오. 사람을 道로써 사귀지 않고, 사람을 禮로 대하지 하지 않았소. 내가 만약 한 번 받는다면, 시를 팔아서 값을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물리친 것이오.” 이절은 “과연 그렇겠소.”하고 물러갔다.<sup>10)</sup>

위 대화는 비록 표류인 처지에서 중국 현지인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마땅히 대접할 것이라고는 시를 지어 답례할 밖에 없었던 답답한 상황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감사하기 위함에 있지 시적 재주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崔溥의 기준은 道와 禮의 범위에서 처신할 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장사치와 다름없다고 한 것은 崔溥가 正名意識을 투철하게 지닌 선비임을 알게 한다.

이렇듯 최부의 시가 차츰 정평이 나자, 한 관리가 의심쩍은 눈으로 질문했다. 같은 2월 4일자 기록을 보자.

“그대가 사례로 써준 시를 보니 어찌 이곳 산천을 그리도 자세히 아시오? 혹 이곳 사람들에게 들어서 쓴 것이 아니오?”, “나는 여기 사방에 의지할 곳도 없고, 말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니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겠소? 나는 예전부터 중국지도를 본 적이 있는지라 다만 이곳이 어디인지 기억을 살려 기록했을 뿐이오.”<sup>11)</sup>

10) 崔溥, <漂海錄> 卷3, 『錦南集』, 韓國文集叢刊 16, 452쪽, 民族文化推進委員會. “因節以遺臣 欲求詩 臣曰 無功而受人之賜 是傷廉之地 敢辭 節曰 此人欲求一詠以爲記爾 臣曰 做得詩不好 學得筆亦不好 以不好易人之好 非所欲也 其人還袖去 李節謂 臣曰 交以道 接以禮 則孔子亦受 是何卻之之甚 臣曰 彼人非是肯捨冊也 意在得詩 則交不以道 接不以禮 我若一受 則是賣詩取直 故卻之”

11) 崔溥, <漂海錄> 卷3, 『錦南集』, 韓國文集叢刊 16, 448쪽, 民族文化推進委員會. “看汝謝詩 此地方山川 汝何知之詳 必此地人所說 臣曰 四顧無親 語音不通 誰與語言 我嘗閱中國地圖 到此臆記耳”

최부가 써준 시를 받아보니 이곳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있으니 중국 관리처지에서는 의아해할 법도 하다. 그러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땅에서 예전에 지리지 편찬했을 때를 떠올려 중국 각지의 풍물을 시에다 읊겼을 뿐이다. 여기서 관리의 물음에 대한 최부의 대답은 <耽羅詩三十五絶>을 지을 수 있는 바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시사해준다. 추쇄경차관으로 내려와 불과 3개월도 안되는 짧은 체류기간 동안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압축하여 한 편의 대서사시로 엮어낸 능력은 최부의 박물학적인 지식이 총동원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4. <耽羅詩三十五絶>의 주제별 분석 고찰

현재 최부가 지은 시로는 조선 중기 때 문인 許筠(1569~1618)이 편찬한 『國朝詩刪』에서 <讀宋史><sup>12)</sup>가 유일하게 전한다. 이 시는 송나라가 오랑캐나라에게 빼앗기자 삼백년 사직이 안타깝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균은 이 시에 대해 평하기를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씩씩하고 장하지만 기세가 갑자기 꺾여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끔 한다”<sup>13)</sup>고 했다. 이는 송나라 역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가 『東國通鑑』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한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후일 南龍翼(1628~1692)이 엮은 詩選集인 『箕雅』와 張志淵이 엮은 『大東詩選』에도 같이 전하고 있다. 이 밖에 갑자사화 즈음에 지었다고 하는 시가 전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sup>14)</sup>

12) “책읽다가 등심지 돋우며 길게 탄식하노니(挑燈輟讀使長吁)/천지간에 대장부 하나 없었을까(天地間無一丈夫)/삼백년 이어온 중국땅을(三百年來中國土)/어찌 고향한 선우에게 주었을까(如何付與老鮮于)”

13) 許筠, 『國朝詩刪』, 悲壯頓挫 令人改觀.

14) 이종범은 『사립열전1』(아침이슬, 2006) 38쪽에서 “북풍이 다시 세차게 부는데北風吹更急/남녘 길이 이리 멀까南國路何長/매화는 차갑게 잔설을 이고梅冷封殘雪/말라버린 연꽃가지 못 속에 서 있네荷枯立小塘”라는 작품을 崔溥의 시라고 소개하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은 서사시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기 보다는 제주의 자연경관과 탄생전설, 그리고 역사와 풍물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제주 전반에 걸친 일종의 장편서사시로 분류할 수 있다. 崔溥의 서사적 경향은 그가 과거에 1485년에 『東國通鑑』을, 1486년 『新增東國輿地勝覽』을 편찬했던 경험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역사서와 지리지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갖가지 사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崔溥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키워나갔을 것이다. 이는 經世濟民에 강한 포부와 의지를 가졌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耽羅詩三十五絶>은 7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편의상 일련번호를 매겼지만 우연찮게도 三十五絶 또한 주제별로 순서를 매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崔溥가 작시과정에 이를 염두에 두고 창작했거나 아니면 후일 누군가에 의해서 현재의 순서로 매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1) 제주섬의 풍경

[1]

渤海之南天接水 발해 남쪽 하늘과 바다 서로 이어져  
 鱗潮鼉浪無涯埃 거센 물결 끝없이 물밀듯이 밀려오네  
 耽羅國在渺茫中 탐라국은 멀리 아득한 곳에 있어  
 一點彈丸九百里 한 발 총알 같은데 주위가 육백리라네

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조선 전기 때 문인 洪聖民(1536~1594)의 작품으로 그의 문집 『拙翁集』에서 <高靈東軒韻表五代祖申參判韻>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필자의 조사 결과 조선 전기 때 공조좌참관을 지낸 申櫓(1382~1433)이 高靈縣監으로 재직할 때 지은 시로 원문은 ‘山勢千層秀/溪流一派長/地靈遺古館/園靜有寒塘’이다. 이 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申櫓의 딸은 洪聖民에게 증조모가 된다. 이후 김세손의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은세미로, 2010) 47쪽에서도 검증없이 재인용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제주 전체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崔溥는 ‘발해’라는 나라이름을 인용하면서 그 역사의식의 바탕을 짐작케 한다. 비록 지금은 한반도로 국한되어 있지만 발해땅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음은 그의 호방한 기상을 엿보게 한다. 육지와 사뭇 다른 파도의 풍경을 ‘鱗潮’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물결과 ‘麗浪’에서 악어입처럼 당장 집어삼키기라도 할 것처럼 거센 파도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1-2구가 가까워서 바라본 모습이라면 3-4는 제주 전체 모습을 멀리서 조망하고 있다. 섬전체가 마치 환한처럼 생겼으며 그 길이가 구백리라는 사실은 육지와와 거리감을 좀더 넓히는 시적장치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中有靑螺駕六鰲 섬 가운데 소라고둥같은 파란 봉우리 자라에 올라탄 듯하고  
巨靈擘破勢周遭 큰 신령이 쪼개고 깬 형세인 듯 주위는 둥그렇네  
撐天圓嶠無頭處 하늘 떠받친 둥근 산은 머리가 없고  
翠壁一里千尺高 푸른 절벽 천척높이 한 리만치 높다네

제주섬 漢拏山을 묘사하고 있다. 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소라고둥처럼 보였다는 사실은 崔溥가 제주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마치 겨울이라 한라산에 눈이 가득 쌓였음을 말해준다. 맑게 깬 하늘을 배경으로 바라보니 마치 자라거북등에 올라탄 듯하다고 했다. 산 정상이 둥글게 움푹 파졌으니 조물주가 빚은 것임에 분명하고, 가파르게 솟은 절벽이 한 리만큼 높다 하니 그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

[3]

誰從壁頂鑿靈沼 누가 절벽 꼭대기에 신령스런 못을 파놓았는가  
啣蛤幾廻貢貢鳥 조개가 몇 번이나 입벌리 듯 새들만이 날아드네  
拆峙山房果若然 우뚝한 봉우리 깎여 산방산 되었다는데 과연 그럴싸해  
奇觀問却知多少 도리어 기이한 경관 물어 찾는 사람 많지 않네

崔溥는 한라산 정상에서 쉽게 발걸음 떼지 못한 듯하다. 이 산 정상에는 널따란 호수가 있으니 육지에서 보던 여느 산 정상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치 조개가 입벌린 듯하고 새들 제집처럼 수없이 드나든다. 한라산 남쪽에 山房山이 있는데, 아마도 한라산 정상을 떼어다가 놓았다는 전설이 과연 그럴 만하다고 감탄하고 있다. 여기서 崔溥는 과거 역사를 편찬했던 분석적이고 예리한 시선을 잠시 거두고 있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실에 대해 이성적인 잣대를 치우고 있는 것이다. 또 한번 대자연 앞에 왜소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蒼松綠竹紫檀香 질푸른 솔과 푸른 대 그리고 자단향내  
赤栗乳柑橘柚黃 붉은밤, 유감, 귤, 유자는 노랑네  
白雪丈餘紅綿樣 흰 눈이 한길 넘게 쌓여도 동백꽃 피어  
四時留得靑春光 사시사철 푸른 봄빛으로 머무르네

육지와 차별되는 제주만의 특산물을 열거하고 있다. 海松의 검푸른 빛, 키 작은 대나무, 특히 자단향내는 육지의 것과는 그 향과 질감에서 품격이 다르다. 겨울에 밤, 귤, 유자 등을 수확할 수 있다하니 이 또한 낮은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한겨울에 내린 눈이 많이 쌓였지만 눈 속에 핀 동백꽃이 색채의 대배를 통해 한껏 강렬한 인상을 준다. 비록 겨울이라 하지만 마치 봄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제주만의 겨울날씨를 표현하고 있다.

2) 太初의 제주섬과 文明의 시작

[5]

世傳東角東巫峽 동녘 모퉁이 동무 골짜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絃管遙聞第幾疊 겹겹이 쌓인 골짜기에서 악기소리 들려오네  
百里香雲縵繞中 향기로운 구름으로 아득히 가려 있을 때  
仙曹此處應登躡 신선의 무리가 올라온 때라 하네



제주 탄생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다. 동무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마치 장엄한 화음을 내듯 하니 천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듯하다. 구름에 가려 있다면 신선들이 무리지어 찾아와 서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노닐고 있다는 전설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6]

俯瞰人間隔世蹤 내려다보면 사람과 자취가 끊어진 곳이라  
海中別有瀛洲峯 바다 가운데 별친지 영주봉이라네  
秦童漢使枉費力 진나라 동자와 한나라 사자는 헛된 곳에 힘을 써서  
遺興三韓作附庸 버려두고 삼한의 부용국이 되었다네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더 확장되고 있다. 崔溥가 서있는 자리는 하늘 한 가운데이다. 육지에서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우뚝 솟은 산이 바로 영주봉이다. 예전 始皇帝는 不老長生の 藥이 瀛洲峯에 있다는 말을 듣고 童子를 시켜 보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한나라 사신 또한 마찬가지로 秦漢의 강한 나라로부터 속박을 벗어나고 대신 三韓에 부속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있다.

[7]

南畔是山北畔海 남쪽은 산을 마주하고, 북쪽은 바다를 등졌으니  
毛興古穴中間在 그 사이 옛 모흥혈이 남아 있네  
雲烟埋沒事茫然 구름과 안개에 묻힌 사적 까마득히 아득한데  
欲問遺風今幾載 남은 풍속 몇해나 전해왔을꼬

제주 북쪽에 자리한 모흥혈을 말하고 있다. 이곳은 제주의 三姓인 高, 梁, 夫의 시조가 되는 高乙那, 梁乙那, 夫乙那 세 神人인 솟아나온 전설이 얽힌 곳이다. 까마득히 오랜 옛날의 일이 이날까지 제주 사람들에게 의해 신성시되어 온 모습이 崔溥의 눈에 신비롭게 보였을 것이다. 육지에서는 풍속의 변화가 잦은데 비해 제주섬에서는 그 원형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반어법을 통해 재확인하고 있다.

[8]

憶昔神人開國初 옛날 신인이 나라 세운 것 생각하면  
山從游獵水從魚 산에서 사냥하고 물에서 고기잡고  
身如野鶴無歸着 몸은 들판의 학처럼 자유롭게 노닐면서  
地濶天高未有廬 하늘땅 넓고 드높은데 움막조차 없이 지냈다네

태초의 제주 모습을 형용하고 있다. 제주 땅에 문물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연이 정해준 이치에 따라 살고 있었다. 들판에 나가 사냥하고, 물에서 고기잡고 사는 생활은 마치 새처럼 얽매임 없는 自由自在의 삶 그 자체였다. 이 부분에서 崔溥는 태초의 제주의 모습을 노래하면서 한편으로는 制度和 文物이 발전을 거듭했다 할지라도 태초의 인간의 삶이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나았으리라는 생각을 엿보게 한다.

[9]

石函當日來何處 돌상자는 그 때 어디에서 왔을까  
知向郊原播稷黍 이후로 들판에다 곡식을 뿌릴 줄 알았으니  
歲久朱陳成一村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주진처럼 마을을 이루어  
子孫乃爾多如許 자손이 이어내려와 이처럼 많아졌네

제주 탄생과 관련하여 ‘돌상자 전설’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 그 자체 뿐이었던 제주섬에 돌상자가 나타났다. 돌상자에는 사람도 있었고, 동물도 있었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담겨 있다. 이때부터 제주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농경법을 알아 정착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朱陳’이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三姓氏가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자손을 많이 낳아 오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崔溥는 제주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로 혈연관계를 맺는 폐쇄적인 면을 단번에 포착하고 있다. 섬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섬 특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 제주 역사의 회고

[10]

星芒初動雞林天 계림의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 뒤에  
 已躡耽津一葉船 탐진 바닷가에 배 한 척이 닿았네  
 恰似老人朝北斗 노인성이 북두성에 엮드리는 것같아  
 從今始與通人烟 이때부터 사람들이 서로 왕래했다네

태초 제주의 신비에서 벗어나 이제 역사시대에서 제주를 노래하고 있다. 신라 때 제주에서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전라도 耽津, 곧 오늘날 康津을 거쳐야만 했다. 이로써 제주를 耽羅라고 부른 까닭은 여기서 유래했다. 신라에서는 먼곳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客星이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제주에서 온 손님이었다. 그래서 손님을 王子처럼 귀하게 대접했다고 한다. 따라서 제주의 토호세력들에게 내린 벼슬을 王子 또는 星主라고 한 까닭도 모두 여기서 유래했다. 노인성이 북두성을 엮드리듯 대했다는 것은 서로 君臣關係를 맺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11]

好爵旋封兄及弟 좋은 벼슬로 형제에게 내려주니  
 榮還故國傳來裔 영광스레 고향에 돌아와 후손에게 전해졌네  
 梯航欵叩不辭頻 산넘고 물건너 잦은 조공도 사양치 않고  
 朝事新羅暮百濟 처음엔 신라를, 나중에는 백제를 섬겼네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고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섬 또한 육지와 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물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육지와 섬이 서로 상호상승을 위해서는 섬에 대한 교화가 필요하다. 신라는 제주의 토착세력의 지배권을 어느 인정하는 조건으로 벼슬을 내렸다. 대신 육지세력에 일정 부분을 조공한다는 전제하에서 인정했다. 崔溥는 지나온 제주의 역사를 살피면서 섬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주성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12]

松岳龍興掃黑金 송악에 왕이 나타나 북쪽 흑금<sup>15)</sup>을 몰아내고  
 預先歸去獻其琛 미리 돌아갈 마음 있어 보배를 바쳤네  
 奈何變作逋逃藪 어인 일로 난을 일으켜 숲으로 도망하여  
 流入胡元染惡深 오랑캐 원나라가 들어와 못된 풍습 물들었나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자 북방을 어지럽히던 여진족을 소탕하였다. 신라의 국운이 다했음을 미리 알아 고려와의 관계 또한 신라 때처럼 별 문제없이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고려중기 무신정권에 접어들면서 고려의 국운 또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몽고족이 세원 元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三別抄軍의 亂’이 일어났지만, 元의 강력한 세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元의 고려복속정책은 섬인 제주조차 예외는 아니어서 대대로 내려온 美風良俗이 元나라의 習俗으로 인해 바뀌어져 버린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13]

候風鳥口金方慶 추자도에서 순풍 기다리는 김방경  
 明月浦頭都統營 명월포 부둣가에 상륙했던 도통사 최영  
 前後旌旗蓋海來 앞뒤로 많은 군사들 바다로 건너올제  
 渠心厭亂知相應 난리에 싫증나서 조마조마한 마음 서로 알겠도다

몽고에 대한 항쟁은 고려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특히 ‘三別抄軍의 亂’이 대표적이다. 고려군과 몽고군의 연합세력은 삼별초군을 진압하면서 일부 세력은 전라도 珍島, 제주도로 흩어졌다. 김방경은 제주로 가기 위해 추자도에서 일시 대기하고 있었고, 고려말의 최영은 제주에 출몰하는 倭寇를 격파하기 위해 명월포 부둣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섬 안에서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섬바깥 세력들이 자꾸 괴롭히니 애꿎은 섬사람들만 희생될 뿐이다. 그런 탓에 섬사람들이 육지사람들을 다소 경계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표현은 崔溥가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따듯한 시선

15) 黑金 : 북쪽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가리킨다.

으로 바라봤기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14]

通精暴血濺池隍 김통정의 거친 피 쏟아져 웅덩이 이루고  
哈赤頑魂飛劍鋌 합적의 완악한 혼 서슬퍼런 칼에 날아갔네  
綱盡鱸鯨付鼎鑊 큰고기 모두 잡아 가마솥에 삶았더니  
年來無服海波揚 그 후 다시 거친 파도 일지 않았네

고려 후기 몽고지배하의 제주는 처참했다. 몽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고려의 자주성을 꾀했던 김통정은 한때 제주에서 세력을 떨쳐 재기를 노렸으나 김방경과 몽고군이 이끄는 여몽연합군 세력에게 당하고 말았다. 쏟아져내린 피가 웅덩이를 이룰 정도였다고 하니 처절한 항쟁의 현상이었다. 결국 난리를 일으킨 항몽세력들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를 큰 가마솥에 삶았다고 한 표현은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한 시적 장치이다. 이제 더 이상 거친 파도가 일지 않았다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으며, 전쟁의 상흔과 고통은 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중임을 뜻한다고 하겠다.

[15]

到頭安堵復蘇息 드디어 편안히 살게 되어 다시 숨을 쉬고  
弋獵謀生任所得 사냥하며 살며 맡은 바 소임 따라 일했네  
解棹扁舟向北風 작은 배에 돛달고 북풍을 향해 떠나니  
却將土物供臣職 앞으로 토산물 바쳐 신하된 직분 받들었네

몽고와 왜구의 잦은 침입은 제주섬 사람들에게 風前燈火와 같은 운명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고려조차 제주섬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건국되었다. 그간 숨 죽이며 살았던 제주사람들은 이제야 참았던 안도의 숨을 편히 내쉴 수 있었다. 태초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산에 올라 사냥하고,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는 등 태평스런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육지에 대한 종속

관계는 변하지 않아 朝貢을 보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16]

爾來一百十餘年 서로 왔다갔다하며 백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贏得王家德化宣 임금님 덕치와 교화를 가득 입었네  
文物儘從周禮樂 문물은 모두 주나라 예악을 따랐고  
版圖編入禹山川 판도가 우임금의 산천에 들어갔네

몽고항쟁과 왜구침략이 활발히 일어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110여 년 지났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고 제도과 문물도 재편되었다. 지금은 가히 태평성대라 할 만하니 이 모두가 임금이 德治에, 朝廷은 教化에 힘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孔子가 바탕으로 삼았던 周나라의 禮樂을 비로소 구현되었으니 禹임금이 치수에 힘쓴 결과 모든 영역이 혜택을 입었던 것처럼 제주 또한 마찬가지로 혜택을 입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다.

#### 4) 濟州로 가는 旅程과 風景

[17]

我今萬里攀丹詔 나는 만리길 임금의 명을 받들어  
跋涉遠來並海徼 멀리서 바닷가로 건너 왔다네  
又有同舟許使君 마침 같은 배에 허목사와 같이 탔으니  
一番傾蓋瞻相照 한번 이야기 나눴더니 마음이 통했다네

崔溥가 추쇄경차관의 직무를 받들고 제주로 떠나는 명분을 노래하고 있다. 멀리 배를 타고 떠난다는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가득 기다리는 듯하다. 마침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許喜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다행히 뜻이 통해 서로 말동무가 될 수 있었다. 먼길 떠나는 데 새로운 친구와 함께 하니 이 또한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18]

館頭岩畔卸征鞍 관두포 바위밑에 말안장 짐 풀어놓고  
海色天光入望寒 바닷빛 하늘빛 바라보니 겨울하늘이네  
貫月槎浮縱所適 어두운 밤에 배 띄워놓고 떠났으니  
南溟無際學鵬搏 남쪽 바다 끝까지 봉새의 날개짓을 배우노라

崔溥는 1487년 9월에 추쇄경차관을 직무를 받고 같은 해 11월 11일 전라도 해남군 현산면에 위치한 館頭梁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朝天浦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티없는 맑은 하늘 아래 순풍에 돛단듯이 배는 순항했다. 달빛에 어린 바다를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기는커녕 莊子의 봉새를 떠올리면서 저 시커먼 바다 위를 단숨에 날아갈 듯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19]

帆帆却被天風好 외롭게 뜬 배 맑은 날씨에 좋은 바람 만나  
鷁地飛經火脫島 땅 위를 날듯이 화탈도를 지나쳤네  
暫試青蛇掣海雲 잠시 구렁이를 시험하듯 바닷구름을 이끌고  
蜃樓蛟室紛顛倒 드넓은 바다에 신기루와 교인이 뒤엉켜 있네

하늘이 도와 맑은 날씨에 좋은 바람 만났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다. 마치 땅 위를 달리는 것처럼 편안하다. 楸子島를 지나 火脫島에 이르니 제주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가는 길이 그냥 곱게 지나갈 리 만무하다. 구렁이를 시험하듯이 변화무쌍한 바닷구름에 놀라고, 무슨 물체처럼 보이는 것이 자세히 알고 보니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랐다. 드넓은 바다의 다양한 모습에 놀라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에 신기해하고 있다.

[20]

底處一聲送櫓歌 배밑에서 한 목소리로 노젓는 노래소리  
逐船來趨疾於梭 마중 나온 배 북처럼 빨리 다가오네  
蓬窓揭了問前程 봉창을 걷고 얼마나 남았는가 물어보니  
館在朝天影蘸波 파도에 잠겨 비치는 곳이 조천관이라 하네

뱃사공들이 박자를 맞춰 노젓는 노래소리가 신명나게 들려온다. 저 멀리서 마중나온 배가 마치 북소리처럼 점점 가깝게 들린다. 시각적인 내용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이채롭다. 崔溥는 창문을 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물었다. 뱃사공의 표현이 걸작이다. 파도에 잠겨 비치는 곳이 조천관이라 하니 이보다 멋진 표현이 없다. 어제 해남에서 떠난 배가 이튿날 제주 조천포에 도착했다.

[21]

海吐瑞山供逸趣 상서로운 산을 바다가 토해낸 듯 색다른 흥취 일고  
龍蟠牛島呈祥霧 용이 웅크린 듯한 우도에는 상서로운 안개 드리웠네  
山川喜我泛槎來 산천이 배 띄워 온 나를 반기듯 하니  
我亦有情堪指顧 나 또한 정겹게 하늘 향해 손흔들어 보네

제주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낯설다. 저멀리 보이는 산 한라산이라하니 마치 바다가 상서로운 산을 토해낸 듯하다. 저기 보이는 섬이 우도라 하는데, 마치 용이 웅크린 듯한 앉아있는 듯한데, 안개까지 서려 있으니 그 모습이 신비롭기만 하다. 제주의 산하가 저 멀리 육지에서 온 나, 崔溥를 반기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崔溥 또한 이에 답례하기 위해 하늘 향해 손짓한다.

[22]<sup>16)</sup>

燕尾峰腰千萬形 연미봉 둘레에 두른 천만가지 형상은  
爭流競秀不知名 골짜기의 빼어남 서로 다투니 이름 다 알지 못하겠네  
微茫樹色畫圖裏 나무숲은 아득하여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하고  
日暉紅霞照眼明 눈에 환하게 비추는 것은 햇무리 붉은 안개라네

제비꼬리처럼 생긴 봉우리 둘레를 살펴보니 쌓이고 쌓인 퇴적층의 모습 기묘묘하다. 골짜기마다 그 자태 빼어나고 이름도 많아 외우기 어려

16) 22번 시는 시 내용의 전개상 24번 다음에 두는 것이 맞다.

울 정도이다.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는 숲은 마치 태곳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림 같다. 저물녘 햇무리가 붉게 물든 모습을 보니 마치 안개가 타는 듯하다.

[23]

遠人頗識尊王命 이 고장 사람들도 자못 왕명 높은 줄 알아  
扶我登途笳鼓競 나를 도와 길에 오르니 피리 북소리 요란하네  
浦口巉崖道士羊 포구에 놓고 험한 바위는 양처럼 울퉁불퉁하고  
路周磊落仙人鏡 길 둘레에 자리한 낭떠러지 신선의 경계로다

왕명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나온 몸이지만 이렇게까지 음악 소리 요란스레 울려가며 환영인사를 마련해 줄은 몰랐다. 이윽고 제주 땅을 밟으니 눈에 보이는 돌과 바위들이 특이하다. 더구나 울퉁불퉁하고 구멍이 송송 뚫여 있으니 마치 양털처럼 생겼다. 사방이 이런 돌과 바위들 뿐이니 옛날에 어떤 도사가 돌들을 향해 소리치면 모두 양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제주관아로 가는 동안 깎아지른 절벽들의 생김새가 낯설고 신기하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찼던 제주의 첫걸음은 여기가 신선의 경계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즐겁다.

[24]

靑鳥彩鸞如有期 파랑새 채란새 약속이나 했을까  
護予呵護城中馳 나를 지키듯 서로 부르며 에워싸고 성안으로 날아드네  
奔迎拜跪稍知禮 예의를 배워 바빠 맞이하여 무릎꿇고 절하는데  
聒耳語音譯後知 떠들썩한 말소리를 통역을 해야 알아듣네

형형색색의 새들도 나를 반겨하는 듯하여 실재없이 날아든다. 성안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내내 경쾌하다. 섬사람들이라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육지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모두들 예의를 갖춰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는데 행여나 가졌던 선입관념이 기우였음에 안도했다. 그런데 제주 사람들 말소리가 어색하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 누가 대신 옆에서 알

알아듣게 말해주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다. 제주의 낯선 풍물에 당황해하면서도 호기심을 점점 자극한다.

### 5) 제주의 풍속과 물산

[25]

便從父老問風土 노인께 찾아가 날씨와 풍속을 여쭙니  
冬苦風威夏苦雨 겨울에는 바람이 매서워서 여름에는 비 때문에 괴롭다네  
草木昆虫傲雪霜 초목과 벌레들은 눈서리를 업신여기고  
禽無鵠鵠獸無虎 부엉이며 까치며 호랑이는 없다고 하네

제주의 낯섬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崔溥는 제주의 風物 조사에 나섰다. 마을 촌로들에게 찾아 여쭙니 겨울엔 바람이, 여름이 비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고 했다. 가옥구조를 살펴보니 낮고 사방을 벽으로 막았으니 이는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름에 잦은 비 또한 덥고 습한 날씨의 연속이라 쉽게 음식이 상해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겨울이라해도 그리 춥지는 않아 초목과 벌레들이 한겨울 추위조차 우습게 여긴다고 했다. 섬에 없는 동물이 있으니 부엉이와 까치 그리고 호랑이라고 했다.

[26]

人知種植飽餉餉 사람마다 굴나무를 심고 배부르면 코골며 자고  
不羨江陵千戶侯 강릉의 천호후를 부러워 않는다네  
渾把生涯登壽域 온전한 삶을 유지하고 오래도록 살아  
閭閻到處杖皆鳩 마을 곳곳에 모두 구장을 짚고 있네

제주는 따뜻한 기후 탓에 굴나무에 재배에 적합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굴나무를 재배하여 소득을 높였으니 강릉의 천호후가 부럽지 않을 정도이다. 섬 특성상 외부의 침입만 없다면 서로 다툴 일 없으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섬이다. 마을 곳곳을

둘러보니 비둘기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네들이 흔하다.

[27]

嫌將歲月虛拋擲 세월 헛되이 보냄을 싫어하니  
照里鞦韆傳自昔 조리놀이와 추천놀이 예부터 전해왔네  
僧刹了無香火時 스님과 절이 없어 향사를 때 없고  
駢闐簫鼓燃燈夕 연등날 저녁에 북소리 통소소리 요란하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면 오늘 또한 무의미한 것이니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면 이 또한 세월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과 같다. 제주에서는 음력 2월에 새봄을 맞는 즐거움을 누리는 풍속으로 燃燈祭가 있다. 육지에서는 초과일에 하는 행사임에 비해 제주는 섬의 특성에 맞게 이를 변형하여 음력 2월에 시행하고 있다. 이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줄다리기와 그네 놀이를 통해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음악소리가 요란하다. 3구에서 스님과 절이 없어 향 한 줄 사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주에 사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8]

革帶芒鞋葛織衣 닳아헤진 가죽신과 갈옷  
石田茅屋矮紫扉 돌담쌓아 초가집 짓고 울타리는 낮게 세웠네  
負瓶村婦汲泉去 시골 아낙은 허벅지로 물길고  
橫篴堤兒牧馬歸 말테우리는 피리비껴 불며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네

제주 사람들의衣食住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 거친 흙들 위에서 생활해야 하니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다. 닳아 헤진 가죽신은 삶의 고단함에 대한 시적 표현이다. 감잎을 물들여 지은 옷은 육지에서 흰옷을 즐겨 입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돌담으로 쌓은 초가집에 맞춰 울타리도 낮게 세웠다. 아낙네는 물항아리를 머리에 이지 않고 걸망에 담아 등에 지고 있으니 이는 행여 바람에 흔들려 물을 엮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테우리는 말을 지키는 목동에 대한 제주 고유말이다.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는 테우리의 손엔 피리가 들려 있다. 신나게 부르며 동네 아이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지극히 평화롭다.

[29]

民風淳儉看來取 백성들 풍속이 순박하고 검소함을 확인했고  
不必彎絃徒尙武 활쏘기만을 익혀 무예만 숭상한 것은 아니라네  
絃誦東西精舍中 동서쪽 서당에서 글읽는 소리 끊기지 않고  
元來人傑擬鄒魯 원래 인걸들이 공자와 맹자의 마을 이루었네

제주사람들의 순박하고 검소함을 실제 눈으로 살펴봤으니 의심할 나위 없고, 사냥 또한 섬생활의 중요수단이다보니 무예 또한 출중했다. 그러나 무예만을 숭상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글읽는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文武를 골고루 갖춘 고장임을 증명해준다고 하겠다.

[30]

路入杏壇謁素王 길가던 사람도 행단에 나아가 공자님 뵈고  
靑衿揖我明倫堂 유생들은 허리를 굽혀 내게 절하고 명륜당으로 가네  
誰知萬里滄溟外 누가 알겠는가 머나먼 바다 밖에  
有此衣冠禮義鄉 여기 의관과 예의를 갖춘 고장이 있을 줄

길가던 사람들도 공자를 모신 사당인 大成堂에 들러 반드시 절하고, 유생들은 허리굽혀 큰절을 하고 강당으로 간다고 했다. 모두들 禮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 崔溥는 이 먼 바다밖에서조차 禮樂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 놀랐다. 행여 섬사람들이 제도와 문물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 다행히도 기우에 불과했다.

[31]

更誇物產蒞揚富 또 물산 자랑하면 형주와 양주만큼 부유하니

珍寶精華那可數 깨끗하고 진귀한 보물 헤아릴 수 없네  
玳瑁蠟珠貝與螺 거북껍질, 진주, 조개, 소라  
靑皮白蠟石鍾乳 굴껍질, 백랍, 석종유 등등

제주의 특산물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의 형주와 양주는 물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제주 또한 이에 못지 않아 거북껍질, 진주, 조개, 소라 등등 화려하고 진귀한 보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다. 한편 이 때문에 제주가 수탈과 약탈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6) 제주의 도교적 신비

[32]  
乃知仙藥百千般 백천 가지 선약을 바로 알았으니  
箇裡分明有煉丹 그 속에 분명 연단이 들어 있겠지  
收拾鑑中九轉後 술에 모아 넣고 아홉 번 굴린 후에  
定應白日可飛翰 응당 대낮에도 높이 날 수 있다지

제주의 신비로움은 도교적 분위기마저 자아내고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절경이 아닌 곳이 없으니 여기가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태곳적 신비의 비경을 갖춘 숲속에 당연 煉丹이 있을 터이니 그것으로 長生不死 藥을 지었으면 하는 소망을 내비친다.

[33]  
我來得觀神仙宅 신선이 사는 섬에 내가 왔으니  
採了天台劉阮藥 유령과 완정이 캐어먹던 약을 천태산에서 썼네  
願學麻姑看海桑 원컨대 마고선녀의 상진벽해를 보려면  
應將此身壺中托 응당 이 몸이 선경에 머물러야 할 것일세

제주를 신선이 사는 섬이라 익히 들어왔지만 막상 이곳에 와보니 몸소

실감하고 있다. 유령과 완정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사는 삶을 소망하지만 인간은 유한함 앞에서 늘 소망에 그치고 만다. 마고선녀처럼 언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될지도 모를 무한한 시간 앞에 서 있으려면 평생 제주에 머물러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다.

도교의 이상향은 自由自在에 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崔溥 또한 얽매임없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 7) 제주에서 얻은 교훈

[34]  
紫殿九重憶聖君 구중궁궐에 계신 임금을 생각하니  
白雲千里戀雙親 흰구름 천리 밖 부모님 그림네  
此身猶未全忠孝 이 몸은 충성과 효도를 다하지 못했으니  
不忍堪爲方外人 속세 밖 사람이 될 수 없다네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니 멀리 구름 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唐나라 狄仁傑이 并州에서 法曹參軍으로 있을 때 太行山에 올라가 흰구름이 외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여러 번 쳐다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저 구름 아래 계신다네.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뵙지 못해 슬퍼함이 오래 되었다네.”하고 잠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다가 구름이 멀리 사라진 뒤에야 산에서 내려왔다고 한 望雲之情의 故事가 자연스레 겹쳐오른다. 비록 제주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몸이지만 임금과 부모의 은혜를 새삼 생각하니 이 몸은 현실 바깥의 세계에서 노닐 수 없는 속세의 몸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35]  
豈獨瀛洲在此地 신선이 사는 곳 어찌 이곳뿐일까  
求之人世不難致 인간세상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니  
莫如還向華山陽 고향인 화산 남쪽으로 돌아감만 못하리니  
保我平生伊尹志 평생 이윤처럼 뜻을 지키며 살겠네

崔溥은 <耽羅詩三十五絶> 마지막에서 한때 제주의 신비에 대해 감탄에서 한걸음 비켜서고 있다. 신선이 사는 곳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결국 分別智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준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인간 세상에서도 신선이 살 수 있는 곳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렇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큰 문제다. 내가 태어난 고향 또한 신선의 세계에 못지 않으니 앞으로 伊尹처럼 名宰相이 되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고 있다.

#### 4. 결론 -<耽羅詩三十五絶>의 가치와 앞으로의 과제

崔溥의 <耽羅詩三十五絶>는 제주의 역사를 노래하고 풍속과 문물을 직접 경험하여 노래한 장편 서사시로서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東國通鑑』과 『東國輿地勝覽』을 편찬했던 경험은 제주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만 지금까지 崔溥에 대한 연구가 『표해록』에만 편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좀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그의 시적인 면모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한계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耽羅詩三十五絶>에서 언급된 제주의 풍속과 풍물에 대한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27]번에 등장한 시어에서 ‘燃燈’은 육지에서 초파일에 행하는 중요한 불교행사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연등제 행사가 영등제곳으로 바뀌어져 있으며 시기 또한 음력 2월이라는 점에 차이점을 보인다.

둘째, 조선 전후기에 걸쳐 보이고 있는 제주의 역사와 풍물을 노래한 서사시의 비교대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문에서 언급한 金宗直, 金尙憲, 李增의 <屯羅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본다면 시적인 차별성

과 함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제주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자료

- 崔 溥, 『錦南集』
- 金尙憲, 『南槎錄』
- 李元鎮, 『耽羅志』
- 李 增, 『南槎日錄』
- 許 筠, 『國朝詩刪』
- 『朝鮮王朝實錄-成宗』

저서

- 이종범, 『사람열전1』, 아침이슬, 2006.
- 金禧東, 『國譯 南槎錄』, 영가문화원, 1992
-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김세곤,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 은세미로, 2010.

투고일 : 2011년 1월 12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Abstract>

## 錦南 崔溥의 <耽羅詩 三十五絶> 研究

林俊成

这是评说朝鲜前期人物錦南崔溥(1454~1504)的<耽羅詩三十五絶>。崔溥是佔畢齋金宗直的文人,居于继承士林的湖南士林的上层阶级的他,从小就负有非凡的气质,刚直及清廉的品德。当时没有旁观燕山君的暴政和勳舊派的專橫,作为书生没有延迟批判的实践知识分子。但是连续被士禍牵连,最终在甲子士禍时以51岁的年龄牺牲。

崔溥的文集《錦南集》里没有传下来 <耽羅詩三十五絶>。好在清陰 金尙憲写的《南槎錄》里传下来 <耽羅詩三十五絶>和序,可以察看崔溥詩的面貌。这作品是1487年11月,为了执行推刷敬差官职务第一次迈步济州岛,在济州岛迁留的3个月左右把济州岛的历史和风物压缩编成一篇大书史诗。不可置疑,这是崔溥动用了所有的博物学知识的结果。在如此短暂的时间内可以做到的理由是他被负责担任《東國輿地勝覽》的增補工作时,对只能记录依照济州产物和风俗的传闻及文献资料的现实环境感到可惜时,恰好有绝好机会可以体验推刷敬差官的济州。

崔溥的 <耽羅詩三十五絶>具有叙述诗的结构。抒发个人情感的较少,一般是以济州的自然风景和诞生神话、历史、风景等客观事实为基础,描写济州的整体的可分类为一种长篇叙述诗。觉得崔溥的叙述风格应该与他在1485年编撰《東國通鑑》、1486年编撰《新增東國輿地勝覽》等获得的经验有密切的关系。历史册和地理记,最终要的工作是表明其事实关系。通过检讨和确认各种事实的过程,崔溥培养了客观能力和分析能力。正是因有对經世濟民具有强大的抱负和意志,才得以形成

核心語：錦南, 崔溥, 耽羅詩, 漂海錄, 金尙憲, 南槎錄